붓다 전기, 어떻게 변화돼 왔을까

동국대 WISE캠 불교사회문화硏 추계학술대회

붓다 전기 연구 4번째 시리즈
동아시아 구법승 유행록 통해
전륜성왕 인식 변천 조명 눈길
붓다관 변화 살핀 논문들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기록해 전해지는 '붓다 전기(佛傳)'가 시대와 지역을 거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은 10월 6~7일 양일간 교내 원효관 4층 글로벌에이스홀에서 '불교의 전파경로와 붓다 전기의 변용 양상-붓다 전기의 한국적 형성화 과정의 전 이해Ⅳ'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붓다 전기 변용을 주제로 열리는 네 번째 학술행사인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 시대를 거치며 나타난 붓다 전기의 변화 양상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한지연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는 '구법승의 유행록(遊行錄)을 통해 본 동아시아인의 붓다관과 전륜성왕에 대한 인식의 흐름 양상'에서 기존 전생고사와 대승불교의 관계성이 전파된 지역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고찰하고 동아시아의 전륜성왕 사상 및 실천이 본격화되는 배경을 붓다 전생의 보시행과 연결해 눈길을 끌었다.

한 교수는 "붓다 입멸 후 인격체로서의 붓다보다는 대승불교의 교학체계와 더불어 신격화된 붓다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이때 전생고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대승불교의 보시바라밀은 신격화된 붓다와 보살이 지녀할 덕목으로 전환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전생고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교수는 양 무제와 동일선상에서 북위 호태후의 전륜성왕을 지향하는 실천행이 존재했고, 동시에 국가불교화의 대표 주자인 북위 불교교단에서 대승불교 전통을 계승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밝혔다.

'보살계관의 변용에 관한 고찰'을 발표한 법장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은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보살계를 유가계와 범망계로 구분해 양자 간에 나타난 영향관계와 상이점을 파악했다. 보살계의 특징 중의 하나인 호상(好相)의 견불체험에 나타난 불타관을 확인하고 전계(傳戒) 주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보살계관의 변용을 고찰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은 10월 6~7일 양일간 교내 원효관 4층 글로벌에이스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천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은 '신라왕의 봉불과 본생설화와의 연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라의 왕이 불교를 수용하고 불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부처님의 본생설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다. 정천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담은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불을 위한 바라밀행이 무엇인지 제시해주고,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보살의 마음가짐과 서원 · 바라밀행은 신라왕들의 봉불행위에 큰 영감을 주었으며, 백성들의 신앙과 도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일본에서의 붓다관의 변용: 붓다에서 종조로'를 발표한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일본에서 붓다에 관한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일본불교의 특징인 종파불교를 통해 살폈으며, 김경의 동국대 WISE 캠퍼스 교수는 '남종선 시기 붓다 이해의 다양성'에서 신수와 혜능, 신화 등 남종선 시기 선사들의 다양한 붓다관을 고찰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은 "불교가 전파되면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들을 '붓다전기'의 변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은 불교의 문화적 전통의 계승 및 재해석을 통한 불교의 사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라 승관사찰 흥전리사지 '사적' 지정

문화재청 10월 6일 지정예고
발굴서 국통 등 비편 출토돼
당시 위세 높은 巨刹로 추정
"불교 · 건축사 중요 유적지"


사적으로 지정예고된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 유구 전경.

삼척 지역을 대표하는 산지 가람이자 신라 승관사찰로 추정되는 흥전리사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0월 6일 관고를 통해 "삼척 흥전리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흥전리사지는 2014년부터 7년 동안의 발굴 조사를 통해 대규모의 산지가람임이 밝혀졌다. 절터에서는 '국통(國統)' '화상(和尙)' 명 비편 등이 출토됐으며, '범웅관아지인(梵雄官衙之印)'이 새겨진 청동인장이 처음 출토돼 문헌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승단조직의 실체가 증명됐다.

2020년에는 국립춘천박물관이 비편 접합 조사를 통해 탑비의 주인공이 귀족 출신 김씨 성을 가진 스님임이 확인됐다.

사적 지정예고에 대해 문화재청은 "삼척 흥전리사지는 발굴조사 결과 당시 상당한 위세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통' 명 · '대장경' 명 등 비편과 완벽한 형태의 청동정병, 인주까지 포함된 인주함과 청동관인, 금동투조 장식판 등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출토됐다"면서 "출토 유구와 유물을 통해 문헌에서만 확인되는 신라 승관제도를 실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척 흥전리사지는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불교사, 미술사,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지로서, 사적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삼척 흥전리사지'를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여수 향일암 일원, '명승' 지정된다

문화재청 10월 13일 지정예고…"경관적 가치 높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인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0월 13일 밝혔다.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은 남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해돋이 경관과 하늘과 맞닿은 봉황산(금오산의 모산)의 지평선, 여수만 건너 남해 금산 등 수려한 해상경관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자연 조망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실제, 거북이(금오산 지형)가 경전(향일암)을 등에 짊어지고 남해 용궁으로 들어가는 지형적 형상과 거북이 등껍질 무늬의 암석들, 해탈문 등 석문(石門) 그리고 기암절벽 사이의 울창한 동백나무숲이 서로 조화를 이뤄 그 자체 경관도 빼어나다.

우리나라 주요 관음기도도량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향일암은 원효 스님이 창건 · 수도하던 중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사찰로, 도서지역 불교문화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예고된 여수 향일암 대웅보전 전경.

韓불교사학회, 상주지역 고녕가야국 유적 조명

한국불교사학회(회장 고영섭)는 10월 22일 오후 1시 상주문화회관에서 '경북 상주 함창 고녕가야 권역의 유적과 유물의 재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경 봉천사 주지 지정 스님의 '임나와 가라의 정체와 성격' 기조발제로 시작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상주 지역 고녕가야국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경북 상주의 고대국가 사량벌국과 고녕가야국의 역사 인물과 유적 유물'을, 이용현 경북대 인문학술원 HK 연구교수기 '경북 상주 사벌국과 고녕가야국 유민의 영덕 사도성 이주 시말'을, 박달석 세종문화재연구원 부장이 '경북 상주 사벌국의 이부곡토성과 병풍산성'을, 이진혁 상주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대구박물관 소장 고녕가야의 유적과 유물'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훈민정음, 불교 도움 있어 완성"

통도사, 10월 7일 학술대회
훈민정음 창제 新관점 조명
종정예하 "묻힌 역사 발굴을"



"정의공주와 신미 대사는 새로 만든 문자를 '언문자모'와 불교이론으로 새롭게 정비해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시작했다. 신미 대사와 불자들은 고대 인도의 조음음성학의 이론으로 새 문자를 해설하고 우리말 표기에 적합하도록 정비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10월 7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제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한글날 제576돌을 맞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로 의미를 더했다.

학술대회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기조연설로 시작을 알렸다. 성파 대종사는 기조연설에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억압이 있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글이 억압받고 묻혀 있던 역사를 밝히는 것이 이 시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정광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는 '새로운 시각으로 본 훈민정음 제정의 경위-세종의 새 문자 제정에 참여한 인물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명예교수는 "세종은 우리말을 완성해 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꿈꿨으며 신미 대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말을 표기했고 비로소 언문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며 "신미 대사는 범어(梵語)와 실담(悉曇)에 능통했고 고대인도의 범자와 성명기론을 새 문자 제정에 원용하여 문자 체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명예교수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불경을 새긴 '옥책(玉冊)'을 공개해 눈길을 모았다.

이어 김무봉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는 '훈민정음 창제와 한글 불전 간행의 의의'를, 임근동 한국외대 대학원 고전언어문화학과 교수는 '고려대장경의 실담문자-유가금강정경석자모품의 음운을 중심으로'를, 오윤희 운허기념사업회 언해불전연구소장은 '언해불전, 번역과 해석의 이론적 근거'를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문광 스님, 김기종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종판 한국외대 인도어과 교수, 이계황 前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사)해동불교 약사종
약사신앙으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구도자를 찾습니다.
1. 약사경을 소의 경전으로 종단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분
3.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4. 현시대에 약사신앙의 필연성을 인식하시는 분
5. 종단에 소속되어 보호받고자 하시는 분
현시대에 걸맞은 약사기도 수련법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 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종무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5-8064 팩스 031)584-8063
총무원장 010-8228-7908